

동강대 외식조리제빵과, 전국 요리대회 휩쓸어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외식조리제빵과가 전국 요리대회를 휩쓸며 손맛을 뽐냈다.

동강대 외식조리제빵과(학과장 이봉선)는 최근 해남군에서 개최된 '제2회 해남미남 전국요리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과 동상을 받았다. (사진)

이번 대회는 지역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퓨전요리 경연으로 2인1조로 팀을 구성해 메인요리와 디저트를 출품했다.

동강대 외식조리제빵과 윤준성·한종규(이상 1년) 팀이 최우수상(전남도지사상), 김경혜·임원희(이상 2년) 팀은 동상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지난달 동강대 외식조리제빵과는 창조적인 쌀 요리 아이디어 발굴과 쌀 소비 촉진, 창의적인 남도음식문화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열린 '전국 청년 쌀 요리 경연대회'에서도 3개 팀이 입상, 2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어린이집 어린이들, '이달의 전남대인' 선정



전남대학교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이달의 전남대인'으로 선정됐다. (사진)

그동안 전남대 교수나 졸업생 등 학교의 명예를 높인 인사들이 '이달의 전남대인'으로 선정됐으나 어린이들이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전남대학교는 지난 29일 학내 어린이집 원생 95명을 이달의 전남대인으로 선정하고 단체 표창과 함께 모두에게 황금 메달을 수여했다.

김은일 전남대 부총장은 어들에게 푸짐한

간식을 제공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김 부총장은 "코로나19 위협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자란 어린이들 모습에서 오히려 어른들이 힘과 용기를 얻고 있다"며 "우리의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씩씩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격려와 응원의 마음으로 표창했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 어린이집(원장 류현강)은 전체 95명 원생, 10개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문학번역상 대상에

고은지·유신신 등 4명



왼쪽부터 번역가 고은지, 마시 카라브레타 칸시오 벨로, 유신신, 잉리아나 탄 (한국문학번역원 제공)

한국문학번역원은 '2022 한국문학번역상' 번역대상 수상자로 고은지와 마시 카라브레타 칸시오 벨로, 유신신, 잉리아나 탄 등 4명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번역대상 영어권 수상자인 고은지와 마시 카라브레타 칸시오 벨로는 이월 시집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오토바이'를 공동 번역했다.

중국어권 수상자 유신신은 한국의 근현대를 대표하는 작가 이태준, 박완서, 손창섭, 오정희, 이정준, 천운영, 공선숙, 정찬의 단편소설을 번역해 대만 맥진출판사에서 '한국문학선집(2)'으로 출간했다. 그는 한국문학뿐 아니라 인문학 도서를 아울러 중국어권 독자에게 한국 문학과 문화를 소개해왔다.

인도네시아어권 수상자 잉리아나 탄은 정유정의 '7년의 밤'을 번역해 인도네시아 그라메디아 출판사에서 펴냈다. 그는 2013년부터 조남주, 장강명, 김영하, 구병모 등 다양한 한국문학 작품을 번역했다.

/연합뉴스

에스엠산업개발, 남구 효덕동에 백미 150포 기부



주에스엠산업개발(대표 남장희)은 최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광주시 남구 효덕동에 백미 10kg 150포를 기부했다. (광주시 남구 제공)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적십자 회비모금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내년 1월까지 적십자 회비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달 24일 특별 모금방송을 통해 모금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김혜순 시인, RSL '국제작가' 선정



김혜순(67·사진) 시인이 영국 왕립문학회(RSL)가 뽑은 '국제작가'로 선정됐다.

1일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RSL 웹사이트에 게시된 발표문을 보면 RSL은 지난 30일(현지시간) 12명의 작가들 '국제작가'로 추가 발표했다.

김 시인 외에 앤 카슨, 마리즈 콩데, 치치 단가레바, 코넬리아 폰케, 메리 겟스킬, 파이어 겐, 샤디야 하트만, 오가와 요코, 라자 샤하다, 후안 가브리엘 바스케스, 샤마르 아즈베이 국제작가로 새로 이름을 올렸다.

김 시인은 '시와 회화의 미학적 교류'로 197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평론 부문에 당선된 문단에 이름을 알렸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10 동네 한 바퀴(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35 굿모닝 카타르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카타르월드컵 2022 하이라이트 모닝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해 불만하 아침 M&W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공각지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 좋아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KBS네트워크특선 엔리랑 쏠래 30 영상앨범 산재	00 커튼콜(재)	15 헬로키즈 공학교실 30 반짝이는 프리채널3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 스페셜(재)	00 12 MBC 뉴스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2022 카타르 월드컵 하이라이트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3]	00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하이라이트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둥실 몽계공향(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50 테마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오늘의 정원, 도시의 미래	50 태풍의 신부	05 매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내 눈에 공각지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커튼콜	00 호적메이트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기획 창 50 더 라이브		30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미라보기 50 카타르월드컵 2022 16강	00 치열업
[11]	30 KBS 뉴스라인	00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모로코:스페인)		10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모로코:스페인)
[1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9:00 말괄량이 삤삤
07:15 출동! 슈퍼왕스	12:1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9:30 한국의 둘레길
07:4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3:00 바닷가 사람들	19:50 극한직업
08:00 댕댕당 유치원	13:50 위대한 유산 - 동남아시아2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로보카 폴리	14:45 한국의 둘레길	〈아프리카 버킷리스트, 탄자니아 -펄바 백 배 즐기기〉
08:35 명탐정 피트3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08:5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5: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배낭 기행 2부 울엄마 집으로〉
09:05 슈퍼두퍼 잉글리시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EBS 다크프라이미
09:20 빅 블루	16:15 페퍼 피그	22:45 건축탐구 - 집
09:35 타타와 쿠마	16:25 명탐정 피트3(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우리집 유치원	16:40 댕댕당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6일(음 11월 13일 쫓바) ☎ 010-9790-8237

<p>36년생 승리의 여신은 노력을 사랑하느니라. 48년생 최선을 다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리라. 60년생 참으로 기쁜 일이 생기게 되는 날이다. 72년생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미련 없이 행동하는 것이 합당하다. 84년생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다. 96년생 집안이 가더라도 굳이 내색할 필요는 없었다. 행운의 숫자 : 27, 86</p>	<p>42년생 작으로 인한 혼동의 피해가 상당할 수다. 54년생 절제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66년생 전가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78년생 월을 누듯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라. 90년생 월은 바로 자신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알라. 02년생 일상에 파문을 던지는 이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08, 75</p>
<p>37년생 절제하지 않는다면 순간적으로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49년생 영문도 모른 채 함계하게 될 것이다. 61년생 행하고 싶거든 기탄없이 처리해야 한다. 73년생 다투면 손해요. 양보하면 특이 된다. 85년생 미묘한 차이로만 여겨왔던 것이 큰 변수를 보이리라. 97년생 절대로 무리가 따르지 않아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22, 80</p>	<p>43년생 폭포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판세로는 상당한 변수를 안고 있다. 55년생 성공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다. 67년생 새로운 일에는 기여하지 말라. 79년생 조짐이 보인다면 완전 봉쇄하는 것이 무방하다. 91년생 가변적인 상황이니 탄력적으로 대처하자. 03년생 경제적인 면이 제일 우선되어야만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5, 51</p>
<p>38년생 골고루 살펴보아야만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50년생 지나치다면 치명적일 수도 있다. 62년생 여태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이로움이 있도다. 74년생 불만함이 겹치는 이중고의 상태이다. 86년생 불합리함을 배제하고 발전적인 여건을 조성하자. 98년생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길흉이 좌우되리라. 행운의 숫자 : 96, 68</p>	<p>44년생 일상 생활 속에서 함계하고 있었지만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바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56년생 결코 가볍게 다뤄도 될 문제가 아니다. 68년생 일단 마무리 짓는 것이 나을 것이다. 80년생 대안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할 국세에 놓여 있다. 92년생 하루가 다르게 변하리라. 04년생 유동적 가변성을 인식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24, 99</p>
<p>39년생 지난날의 공적으로 인해서 열렬히 환영받는다. 51년생 근면적으로 상호 결부되어 있음을 알라. 63년생 난해하게 형틀어지는 형국이다. 75년생 고경관념에서 벗어났을 때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다. 87년생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법에 따른 차이가 크다. 99년생 약간의 변동 수가 보이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8, 60</p>	<p>33년생 들고 도는 세상의 이익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45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겠지. 57년생 대중 납어기도 될 문제가 아니다. 69년생 내버려 둔다면 급속히 냉각되어 불명백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 81년생 어려움을 지나갔으니 안심해도 되느니라. 93년생 확신이나 서면과감하게 실행해도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04, 58</p>
<p>40년생 지속적이야만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52년생 여러 가지가 함계 올 것이니 예리한 시각과 유연한 수용 능력이 중요하다. 64년생 외형상으로는 복잡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풍부해진 셈이다. 76년생 나타나는 효과가 커진다. 88년생 임시적이니만큼 전혀 집착할 필요 없다. 00년생 살펴만 보아도 쉽게 파악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9, 84</p>	<p>34년생 성사의 길로 가고 있는 과정이니 최선을 다하라. 46년생 지구력의 강도가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58년생 물심양면의 상호 조화가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겠다. 70년생 절제할 수 있어야 무탈하다. 82년생 끝나는 마당에 문제가 불을 수도 있다. 94년생 형식적인 허울보다 실질적인 인지가 훨씬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39, 54</p>
<p>41년생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청된다. 53년생 의외의 행운이 들어올 수다. 65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도 있게 마련이니 용기를 잃지 말라. 77년생 타산지식의 격이므로 남의 일에서 교훈을 얻을 수다. 89년생 마음은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01년생 좌우시간에 걸려들면 복잡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14, 55</p>	<p>35년생 만망하여 왔던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47년생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놓이게 되면서 많은 가능성이 동반하게 된다. 59년생 지켜보고만 있으면 된다. 71년생 벌난 것을 접하게 될 것이다. 83년생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만 결정적인 시기를 포착할 수 있다. 95년생 일일이 대응할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38, 71</p>